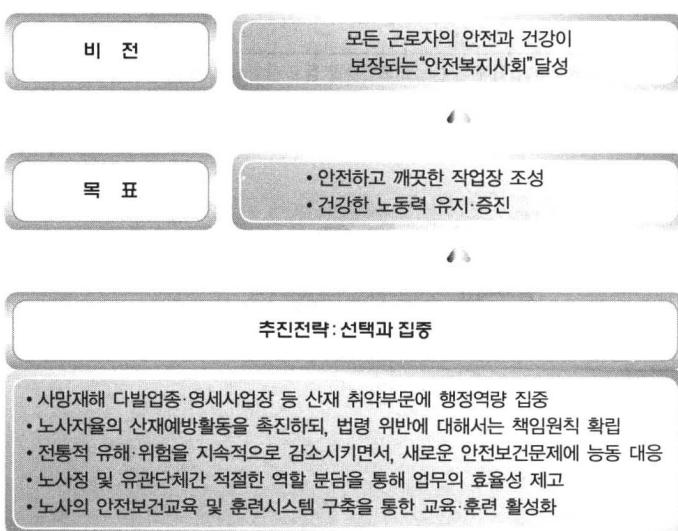


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 요약

산업구조의 변화, 노동시장의 변화, 안전보건에 대한 욕구 증대 등 노동환경의 변화 속에서 노동부는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국가재해예방정책인 '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(2005~2009)'을 발표하였다. 이와 관련하여 그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. <편집실>

제2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의 비전과 목표



주요 정책과제별 추진계획

1. 안전·보건 취약부문 종점관리

- 1) 사망재해 다발업종(유형) 관리 강화
 - 사망재해 1순위인 건설업의 추락 등 재래형 재해 감소방안을 마련·추진
 - 사망재해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 사망 재해 예방을 위해 세부업종별로 특성에 맞는 중점관리방안 등의 사망재해 예방대책을 마련, 획기적인 사망재해 예방효과 극대화
 -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업무상 질병 사망자는 단기적 대응이 어려운 구조적 측면이 있음을 감안, 장기적인 감소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·시행

2) 안전격차(Safety Divide) 해소 지원

-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작업환경 개선
- 지도·지원기능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장의 자율 개선의지 및 능력을 등을 감안하여 대상별로 차별화된지도·지원 제공
- 자율 개선의지 보유 사업장: 클린사업을 확대하여 지속 추진·문제점 보완
- 재해다발 등 구조적 취약 사업장: 안전

- 보건개선계획을 통해 안전보건능력 제고
-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장: 엄정하게 법 집행
 - 산재취약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
 - 여성, 고령자, 외국인, 비정규직 등의 근로자에 대해 특화된 안전보건교육, 건강 관리기법 보급 등 지원 강화
 - 모기업 -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
 - 기계·기구, 방호장치 등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

3) 대형 산업사고 예방기능 강화

- 공정안전문화(PSM Climate) 정착
- 화학업종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PSM 제도 정착이 필수임을 감안, 동 제도개선 및 PSM 차등관리 내실화 도모
-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설치·운영
 - 울산, 여수 등 화학공단 인근에 예방센터를 설치하고 노동부·한국산업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동 예방센터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
 - SOC 건설현장 등 차등관리 강화
 - 국가 균형발전전략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앞으로도 SOC 건설공사 외 대규모 건축물 건설공사도 꾸준한 증가 예상, 차등관리대상으로 SOC 현장 이외의 아파트·빌딩 등의 건축물 건설현장에 추가 적용하는 방안 검토

2.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 촉진

- 1) 노사참여적 산재예방 활동기반 조성
 -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성화

- 위원회 업종별 운영모델 개발·보급, 우수 사례 발굴·보급, 실태조사 후 심의대상 조정 등
-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개선
- 노사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에 순기능을 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
- 노·사 단체의 재해예방정책 참여 확대
-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정부 차원의 안전보건 교육비 지원 등의 재정지원 강화

2) 사업장 자체 산재예방체제 정착

-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개편
- 안전·보건관리자의 위상을 강화하여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충실히 발휘하도록 하고 안전·보건관리대행 제도의 점진적 폐지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개편
- 필요시 외부의 전문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재해율 불량 등 일정요건 미달시 외부의 컨설팅을 받게 하는 등 자율과 책임 부여
- 안전보건경영시스템(OSHMS) 보급 확대

3) 민간전문가 및 서비스 기관의 질 제고

- 산업안전·보건 컨설팅 제도 활성화
- 산업안전·위생지도사가 산업안전·보건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손쉽게 사업장에 제공
- 안전·보건관리 서비스 기관의 질 향상
- 책임있는 서비스가 미흡한 안전·보건관리 서비스 기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의 수준평가제도 마련 및 평가결과 공표, 과징금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안 추진

3. 근로자 건강증진

1) 작업관련성질환 예방 강화

- 근골격계질환 예방기능 강화

- 질환 예방의무가 산업현장에 원만히 이행 되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도·지원하되, 우리 현실에 적합하도록 중장 기적으로 제도 개선 지속 추진

- 뇌심혈관질환 예방

- 질환예방 기반이 산업현장에 확고히 구축 되도록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개발·보급, 5대 고위험 업종 사업장 DB구축, 질환 작업관리지침 지속개발 등 다양한 방안 강구

2) 평생 건강관리체제 구축

- 건강진단제도 개선

-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건강진단제도로 개편 추진

- 일반건강진단: 진단주기·항목을 건강실태 및 산업현장의 현실에 부합되게 조정

- 특수건강진단: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 진단 대상 유해인자 연계, 실시주기 조정 등

- 근로자 건강증진운동 활성화

- 지역산업보건센터 설치,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, My Health 구축 등 추진

3)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

-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내실화

- 지도·점검강화, 측정기관에 대한 불시 모니터링 강화 등 부실측정 예방

-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·건강증진 을 유기적으로 연계 또는 통합한 종합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도적으로 강구
- 유해인자에 대한 종합적 관리
- 국가 산업화학물질 관리시스템 구축, 화학물질의 유해·위험성 분류·표시기준의 국제기준으로의 상향조정 및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선
- 고소음지역 표시제도 도입 등 난청예방 종합대책 수립·시행

4. 사업장의 책임 강화

1) 노사의 법 준수풍토 조성

- 법 위반 노사에 대한 제재 강화

- 재해율 불량 사업장 등에 대한 명단 공표 제도의 확실한 정착

- 산업안전보건 규제의 합리화

2) 교육·홍보활동 강화

- 평생안전교육 홍보 시스템 구축

- 어릴 때부터 안전의식이 생활화·체질화 되도록 어린이·어머니들에 대한 안전교육·홍보 지속 실시

- 계층별·세대별 특화된 교육·홍보, 업종별·규모별 수요자 욕구에 맞는 교육·홍보 등 평생안전교육 홍보 시스템 구축

- 수요자 위주의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

- 내실있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

- 안전문화운동에 음주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계몽을 포함하는 등 실질적으로 산재 예방에 기여 가능토록 개선방안 마련

- 안전보건교육의 확대

- 주요 대학원 또는 안전공단 교육원에 산업안전보건정책 CEO 과정을 부설 사회교육과정으로 개설·운영토록 지원
- 안전보건종합전시관 설립·운영, 전담강사 배치를 통한 이동안전교육의 내실화, 체험교육의 확대, 방송매체 활용 등 추진

3) 점검·감독의 현장 적용성 제고

-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개편
-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, 새로운 유해·위험요인 등을 적절히 규율 가능토록 법체계 개편방안 검토
- 점검·감독시스템의 현장 적용성 제고
- 실태조사를 거쳐 점검·감독 대사조정, 유사 점검·감독 통합 등 산업현장에 맞도록 점검·감독시스템 개선

5. 산업안전보건의 선진화

1) 산재예방 인프라(Infra) 구축

- 다양한 안전보건지표 개발
- 산업재해 통계제도의 개선
- 지도·감독 행정역량 강화
-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, 기술적 감독관 증원 및 전문화교육 강화

2) 안전보건 기준의 국제화

- 국제기준의 수용노력
- ILO 기준의 수용과 국내 안전보건기준의 국제표준화 노력을 강화
- 'SHE-Q 통합모델' 개발
- OECD SHE-Q 통합모델 개발사업과 연

계하여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'SHE-Q 통합모델'을 개발·보급

3) 선진예방기법 연구지원 및 국제교류 확대

- 산업안전보건정책 연구활동 촉진
- 선진국과의 협력활동 활성화
- 개도국 등에 대한 기술협력 강화
- 중국, 베트남 등 개도국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분야 기술협력사업 확대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
- 북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체계적인 안전 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 교육·기술 지원방안 강구

성과와 전망

재해율 감축속도의 하방경직성, 새로운 유해·위험요인의 지속적인 대두, 주요 선진국의 중장기 계획의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을 착실히 수행할 경우

- 업무상 사고재해율은 사고재해가 예방대책의 효과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03년 0.81% 보다 △25% 감소한 0.60%
- 업무상 질병재해율은 최근 들어 급증(특히, 작업관련성 질환)하고 있으나 예방활동에 주력하여 2003년 0.09% 보다 △10% 감소한 0.08%
-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은 2003년 1.45보다 1/3 이상 감소한 0.97로 1 미만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